

## 메시지 2

### 기도의 사람

성경: 요 10:30, 14:30하, 15:7, 눅 11:5-13, 왕상 8:48, 단 6:10, 마 26:39

#### I.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복음서들에 계시된 기도의 사람의 순수한 본을 본다 — 마 14:23, 막 1:35, 눅 5:16, 6:12, 9:28.

- A.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 요 10:30.
- B.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결코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매 순간 그분의 아버지의 얼굴을 주목하셨다 — 행 10:38하, 요 8:29, 16:32하, 비고 출 33:14, 고후 2:10.
- C.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어떤 고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 벧전 2:23하, 눅 23:46.
- D.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한 사람이셨는데, 이 사람 안에서 세상의 왕인 사탄은 어떤 것도(어떤 것에서도 조금의 입지나 기회나 기대나 가능성도) 가질 수 없었다 — 요 14:30하.

#### II. 기도의 사람은 다음의 특징들을 지닌 진정한 기도를 한다.

- A. 기도의 사람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묘사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여 아버지에게서 생명 공급을 받는다.
  - 1. 기도할 때 우리의 의도는 생명 공급을 얻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떡은 땅의 풍성을 대표하고, 물고기는 바다의 풍성을 대표하며, 달걀은 공중과 땅 모두에 있는 어떤 것의 풍성을 대표한다 — 눅 11:5-13.
  - 2. 이러한 풍성의 총체가 성령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 눅 11:11-13.
  - 3. 이 생명 공급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돌봄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도 양육한다 — 비고 요일 5:16상, 고후 3:6, 행 6:4.
  - 4.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빗나가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 5.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확실히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하여 하기를 원한다.
  - 6.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가득 채우시며, 우리 존재 자체를 적시시도록 하나님께 길을 내어드린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다만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 B.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것은 기도가 참된 자아 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막 8:34, 9:29.
  - 1.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 갈 2:20.
  - 2. 심지어 “오, 주 예수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짧은 기도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롬 10:12-13.
- C.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익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 — 왕상 8:48.
  - 1.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할당한 몫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골 1:12, 2:6-7, 신 8:7), 거룩한 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며(시 48:1-2), 거룩한 성전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한다(엡 2:21, 딤후 3:15).
  - 2.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들을 열고 하루에 세 번 기도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임을 가리킨다 — 단 6:10.

3.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익,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겨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마 26:39, 요 4:34, 5:30, 6:38.

IV.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요 15:7, 요일 1:3.

V. 기도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 A.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광스러운 중보 기도는 두 친구들 사이의 친밀한 대화,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보여 주신 것에 따른 그분과의 인간적이고 친밀한 대화였다 — 창 18장, 롬 4:12, 대하 20:7, 사 41:8, 약 2:23, 아 1:1-4, 계 2:17, 딤후 2:1, 8.
- B.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사람의 수준에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셨다 — 창 13:18, 18:1-2, 13-15.
- C.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달콤한 교통을 누리는 동안에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멸망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 창 18:9-22.
  1.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산출하시며,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생활 안에 있는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임을 보여 준다 — 갈 1:15-16, 2:20, 4:19, 고전 5:8.
  2.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는 중에 불가능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는 가능하게 된다는 계시를 받는다 — 창 18:14, 눅 18:27.
- D.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다 — 창 18:17-22, 비교 히 7:25, 사 59:16, 겔 22:30.
- E. 창세기 18장은 중보 기도의 기본 원칙들에 관한 분명한 계시를 제시해 준다.
  1. 합당한 중보 기도는 사람에게 의해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시작된다. 따라서 합당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 — 창 18:17, 20-21, 19:27-29, 시 27:4-8, 히 4:16, 7:25, 약 5:17.
  2.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그는 암시적으로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창 14:12, 18:23, 19:1, 27-29).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떠내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함을 보여 준다.
  3.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내적인 의도에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을 배워야 한다 — 창 18:23-32, 마 6:6.
  4.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따른 것이다.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애원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따라 그분께 당당히 요청했다 — 창 18:23-25, 롬 1:17.
  5.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의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는데, 이것은 참된 중보 기도가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보여 준다 — 창 18:33, 롬 8:26-27.

VI. 기도의 사람은 자신에 속한 모든 것, 특별히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제쳐두는 사람이어야 한다 — 행 10:13-15.

VII.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복종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고후 12:7-10.

VIII.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생활이 자신의 기도와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고후 1:12, 2:10, 살전 5:17, 비교 막 11:22, 히 11:5-6.